

농어민·전세버스 기사 지원 신설...일자리 사업은 축소

국회 추경 통과...화훼·친환경 농산물 재배 피해농가에 160억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용자사업 신설...고용 취약계층 긴급지원도 늘어

국회는 25일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예산은 일자리 사업 등을 줄여 확보했다. 국회는 정부안보다 1조4000억원을 증액하고 1조4400억원을 감액해 총 400억원 순감한 추경을 이날 처리했다.

증액과 감액 규모가 비슷해 추경 총 규모는 14조9000억원으로 정부안(15조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적자국채 추가 발행도 피해 국가채무

도 정부안의 965조900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 농어가·전세버스 지원 신설하고 소상공인 지원 늘려 1.4조 ↑=국회는 증액분(1조4000억원)으로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가 바우처 지원을 신설했고 고용취약계층 중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 사업도 새로 만들었다.

농어업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2422억원을 늘렸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

를 입은 농·어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주는 사업에 1823억원을 투입한다.

과경근로 1000명 확대 등 인력 지원, 화훼·친환경 농산물 등 코로나19 피해작물 재배농가에 160억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고용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1천243억원 확대했다. 코로나19로 관광 수요가 감소해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지급하는 데 245억원,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감염관리수가를 한시 지원하는 데 480억원, 필수노동자 103만명에 마스크 80장을 지

원하는 데 370억원을 각각 쓴다.

◇ 기존 소상공인 용자사업 줄이고 일자리 사업 삭감해 1.4조 ↓=국회는 추경 총 규모를 정부안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도 일부 사업을 증액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총 감액분은 1조4400억원이다.

우선 기존 소상공인 용자사업 예산에서 8000억원을 깎았다. 지원이 더욱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용자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기존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인 것이다. 저신용 소상공인 용자사업 예산을 1조원 증액하는 것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은 총 2000억원 늘었다.

일자리 사업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시정

이 떨어지는 사업을 일부 축소하고 가족돌봄비용 등을 조정해 2800억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또 최근 금리 변동에 반영해 국고채 이자를 조정하면서 3600억원을 감액했다. 항목별로 보면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예산은 국회에서 7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6조9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은 정부안 1조원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1000억원, 방역대책은 정부안 4조1000억원보다 1000억원 늘어난 4조2000억원으로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긴급 고용대책은 정부안 2조8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어든 2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아이키움 행복도시 만들어요”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5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이키움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협의회에 참석해 아이키움 행복도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NSC “미 대북정책 검토 중 북 미사일 발사...깊은 우려”

정부 “긴밀한 한·미 공조 대응”

정부는 25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우려를 표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 정부는 오전 9시 NSC 상임위를 소집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50km 그리고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날 열린 NSC 상임위에서는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에 이어 1시간 30분 동안 북한의 발사체 발

사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특히 NSC 상임위원들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발사 배경·의도 등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NSC 상임위는 이번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면서도 ‘탄도미사일’ 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사일 제원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판단 결과를 토대로 추후 합참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미 양국은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러 외교장관회의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 출장으로 불참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대상지 403곳 선정

주민참여 자립형 사업 97% 달성

전남도는 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사업인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대상지로 도내 403개소를 선정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에 대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마을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결정함으로써 마을의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20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1538개소를 조성했고, 이번에 선정된 마을까지 합하면 1941개소로 목표의 97%를 달성하게 된다.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씨앗·새싹·열매 등 3단계로 추진된다. 마을공동체 형성단계인 ‘씨앗’은 216개 단체가 250만~500만원, 활성화 단계인 ‘새싹’은 183개 단체가 800만원, 고도화 단계인 ‘열매’는 4개 단체가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단체는 사업컨설팅 및 회계교육을 이수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과 실행계획 승인 이 완료되면 4월 초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열매단계에 선정된 해남 연호마을 부녀회는 마을자원을 활용한 보리축제, 수제맥주 체험 등 마을 브랜드 향상에 힘쓰고 있다. 곡성 농민열린도서관은 청소년 배움터와 여성이 참여하는 그릇살림 배움터를 통해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고, 생태텃밭 배움터에서 수확한 농산물 나눔장터도 운영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경남도, 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 공동건의문 전달

전남도는 25일 경남도와 공동으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 결의 및 지정축구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환경부에 전달한 건의문은 ‘대한민국 유치선언과 함께 COP28 개최지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으로 우선 지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은 지난 2월 ‘COP28 유치위원회 정기총회’에서 공동유치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장인 윤상기 하동군수,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 순천, 광양, 고흥, 구례, 진주, 사천, 남해 등 7개 시장·군수가 서명했다.

전남도는 경남도와 공동으로 COP28 남해안 남중권 개최를 위해 두 도지사 간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중앙부처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또 유엔기후변화협약 취지에 맞는 저탄소 사회, 신재생에너지 경제, 미세먼지 감축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일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종합비전’을 선포했다.

김정완 전남도 COP28유치추진단장은 “여수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 세계에 환경과 기후 이슈를 제시하고 실천한 선도지역”이라며 “COP28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읽습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투자 정기·수도권
고수익보장
20년경력. 010-3605-5000

대지급매

위치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면적 **2,816㎡(851평)**

금액 **71억**
(5월1일 이후 85억)

4월 30일까지만 추진합니다

문의 **010-6432-5070**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합병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용주(이하 “갑”)와 제이엔포장건설 주식회사(이하 “을”)에서는 서기 2021년 3월 24일 각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제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21년 3월 26일

“갑” 주식회사 **용주**
전라남도 여수시 읍촌면 서부로 1959
대표이사 **주영수**

“을” 제이엔포장건설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186-1, 11동 303호(현대아파트)
대표이사 **신명환**

산행안내

3월28일(일)

▲**광주Ki산악회** 3월28일(일)
경기 의왕, 한남정맥&백운산, 광교 산행, 염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주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Ki산악회 ☎ 010 7794 6920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중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동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천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